

NHK에 ^{고이} 恋하세요! in서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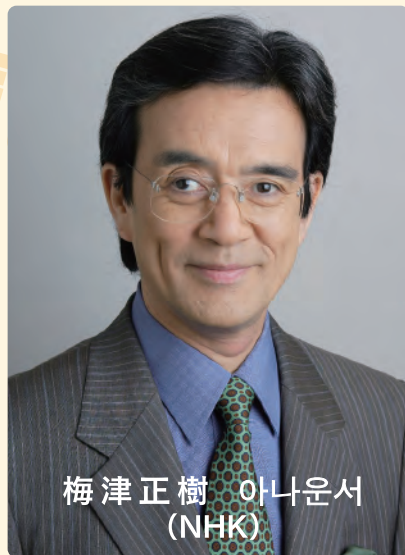
~NHK와 KBS의 아나운서가 말하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현재 그리고 미래~



古家正亨 씨
(한국대중문화평론가)



임수민 아나운서
(KBS)



梅津正樹 아나운서
(NHK)

〈일본〉을 한국에 전하는 NHK 국제방송, 라디오 일본이 애청자를 모시고 특별 기획 〈NHK에 ^{고이} 恋하세요! in 서울〉을 공개 수록합니다.

그 어느 때보다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.

양국은 언어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노래와 드라마 등을 통해 일본 사회에 파고든 한국어는 앞으로 일본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? 그리고 일본과의 문화 교류는 한국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? 한국어와 일본어의 앞날에 대해 ‘말의 달인’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.

출연자는 ‘NHK의 말박사’ 우메즈 마사키(梅津正樹) 아나운서, KBS 라디오 ‘희망가요’의 DJ 임수민 아나운서, 그리고 K-POP과 한류 드라마 등을 일본에 소개해 온 평론가 후루야 마사유키(古家正亨) 씨입니다.

일시

2011년 10월 30일 (일) 13시~15시

장소

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뉴센추리 홀

정원

126명

응모방법 아래 웹사이트 ‘메일보내기’에 ‘참가희망’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▶▶ www.nhk.or.jp/korean

응모가 정원을 넘을 경우에는 추첨 후 당첨되신 분께 별도 연락 드립니다.